

宝物로 지정된 堯明科學文化財들

坤輿萬國全圖

寶物 : 第849號
 所藏 : 서울大學校傳物館
 製作年代 : 1708年(숙종 34)
 材料 : 종이에 채색 필사한
 8폭병풍
 크 기 : 세로 170Cm
 가로 533Cm

첫 제작은 「마테오리치」가

서양 地理學이 마테오리치(Matteo Ricci, 利馬竇)에 의해서 처음으로 中國에 소개된 후 간행된 漢譯 出界地圖는 中國人의 세계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후 朝鮮에도 전래되어 朝鮮의 地理學과 실학자들

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마테오리치는 1584년과 1602년에 2개의 世界地圖를 제작 간행하였는데, 그것이 『山海輿地全圖』와 『坤輿萬國全圖』이다. 이 世界地圖들은 西洋地圖를 직역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거나 中國 地理學의 전통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中國人에게 쉽게 수용되었다. 이 地圖에서 中國人들은, 大地는 球體이며 世界는 유럽·리비아(아프리카)·아시아·남북아메리카·메가라니카(남방대륙)의 5대륙으로 이루어졌고, 기후는 위도에 따라서 5帶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1602년의 世界地圖는 출판된 다음해에 곧 朝鮮에 전래되었다. 선조 36년(1603)에 북경에 파견된 李光庭과 權愷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이다. 그들은 북경에서 새로 간행된 世界地圖인 『坤輿萬國全圖』를 재빨리 들여오으로써 朝鮮에서의 世界地圖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때까지 朝鮮에 있던 世界地圖는 1402년의 中國 중심의 混一疆理歷代都之圖가 주류였기 때문에, 마테오리치의 世界地圖는 그 당시의 西洋 地理學과 地圖學의 축적된 체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中國을 中央부에 그려

『坤輿萬國全圖』는 1602년 明의 학자 李之藻와 함께 만들어 목판으로 6폭의 타원형 世界地圖였다. 이 地圖는 그당시 유럽에서 가끔 世界地圖를 만들 때 쓰인 아피아누스圖法(Apian Projection)에 따르고 있으며 오르텔리우스(Ortelius)의 1570년판 지도첩과, 메르카토르(Mercator)의 1595년판 지도첩들과, 플란시우스(Plancius)의 1592년판 世界地圖가 참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 유럽의 世界地圖에서는 중앙부에 그리는 일이 없는 中國을

- …… 우리의 傳統 發明科學文化財는 韓民族의 發明科學的 創造性을 나타내는 값진 遺……○
- ……출이다. 그러나 이들 發明科學 文化財는 그동안 認識 不足으로 빛을 발하지 못해……○
- ……왔다. ……………○
- …… 此際에 文公부가 世界 唯一의 渾天時計등 3點을 國寶로, 水標 등 15點을 寶物로……○
- ……指定한 것은 우리 祖上의 슬기로운 創造精神을 이어받고 全國民에게 發明科學하는……○
- ……民族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심어주려는 措置로 評價되고 있다. ……………○
- …… 特히 國寶 및 寶物로 指定된 遺物들은 傳統發明科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天文·……○
- ……氣象分野의 遺物과 地圖(之圖)중에서도 뛰어난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우리……○
- ……의 文化를 말할 때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것들이라고 해온 創造的 遺產들이었다. ……○
- ……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값진 國寶 및 寶物들의 內容은 커녕 어떤 모……○
- ……양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에 本誌는 特別企劃探查를 마련, 이들 國寶 및 寶物을……○
- ……探查하여 連載하기로 했다. ……………<編輯者 註>……○

굳이 중앙부에 놓아서 중화사상에 젖은 中國人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또 中國과 朝鮮 및 日本 등은 마테오릿치가 中國에서 얻은 자료를 쓰고 있다.

이 地圖의 주요한 내용은, 歐羅巴(유럽)·利未亞(아프리카)·南北亞墨利加(南北아메리카)·墨瓦蠟泥加(메가라리카) 등의 5대주를 나타내고 있고, 신대륙과 프톨레마이오스圖 이래로 地圖上에 표시했던 미지의 남방대륙(메가라리카라는 이름을 가진)이 나타나 있다. 그림 중에는 850을 넘는 地名이 있고 또 각지의 민족과 物産에 대한 地誌的 記述이 보인다. 또 타원형의 世界地圖 바깥쪽에는 極投影의 方位圖法에 의한 南北의 2半球圖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 구조론에 의한 九重天說·日月食圖·天地儀圖 등이 그려져 있다.

서울대 博物館 所藏

1602년의 목판본 世界地圖는

1608년에 그림 채색을 넣은 필사본이 제작되었다. 이것은 바다에 배와 이상스런 고기들을 그렸고 땅에는 이상스런 짐승을 그린 것인데 아주 아름다운 채색으로 잘 그려, 훌륭한 繪畵를 보는 듯한 地圖이다.

선조 37년(1604)에는 그 증보판인 『兩儀玄覽圖』가 전래되었고, 그 후에도 몇목의 마테오릿치 世界地圖가 朝鮮에 전래되었으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崇田大學校 박물관에 소장된 『兩儀玄覽圖』뿐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테오릿치의 1602년 世界地圖는 그후 朝鮮에서도 모사되거나 刻板되었는데, 그 중의 대표적 인 것이 숙종 34년(1708)에 관상감에서 제작한 坤輿圖 병풍이다. 관상감에서는 이 때 天文圖도 함께 그려 乾象圖라 하여 짝을 이루었는데, 京畿道 廣州奉先寺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韓國동란 때 행방불명되었다가, 최근 日本에서 발견되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世界地圖는 金良善에 의하면, 奉先寺本과 똑같은데 그 아름다움에서 조금 떨어진다 고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는 北京故宮博物館 소장(2차대전후 미확인)의 것 1부와 朝鮮時代의 것 2부분으로 金食善은 보고하였고, 奉先寺本이 더 아름다웠다 한다. 1708년에 관상감에서 바친 坤輿萬國全圖는 숙종의 명으로 前觀象監正 李國萃와 柳遇昌과 함께 당대의 名畵家 金振汝가 그린 것이다. 제8쪽에는 이 地圖의 성립과 제작경위를 말하는 崔錫鼎의 銘文이 적혀 있다.

金良善은 서울大學校本을 奉先寺本의 그 뒤의 寫本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아무튼 이 地圖는 현재로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린 2부중의 1부이고 그 아름다움 또한 훌륭하여 매우 귀중한 地圖임에 틀림 없다.

參考文獻

金良善, 明末清初耶蘇會 宣教師들이 製作한 世界地圖, 『梅山國學散稿』, 서울 1972.